

‘서울’로 가는 지름길

‘저자와 대화하듯 책을 읽어야’
《동양철학에세이》, 창의적 글쓰기에 좋은 책



글_ 이수석 (인천 동산고 철학/논리학교사, 《논술이 저절로 좋아지는 책》의 저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독서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만든다.

사색은 사려 깊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논술은 확실한 사람을 만든다.

- 벤자민 프랭클린

양복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양복을 제대로 입을 수 없다. 그럭저럭 억지로 옷을 입는다 해도 우스꽝스러울 뿐 옷 입은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끼우면 일은 더욱 더 잘못되어진다. 그 무슨 일이든지 첫출발이 잘못되었다면, 그 출발선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리고 계획한 일이 차질을 빚는다 해도 잘못된 출발은 그 시작부터 다시 해야 한다. 그래야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

모든 일은 그 첫출발이 중요하다. 첫출발이 잘못 되면 겪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된다는 속담은 이런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목적이 서울이라면 서울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길과 정당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당성이 없는 길이라면 비록 그 길이 서울로 가는 최단거리라고 하지만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로 가는 최단거리는 어떤 길이 있을까?

우공이산(愚公移山)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은 그 어떤 큰일이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화적으로 말한 글이다. 지금 시중에는 논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책도 논술에 대한 침경을 말하고 있지 않다. 논술은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우공이산의 지혜로 끊임없이 읽고 써야 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기에는 젊은이들의 시간과 정력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도 유명한 논술 주제이기도 한 ‘악법도 법인가?’ 를 학생들과 수업하였다. 아래의 질문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문장으로 답하라고 하였다.

01. 학생들 두발 규제는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왜냐하면 _____

02. 나쁜 규칙도 규칙일까?(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왜냐하면 _____

03. 악법도 법인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왜냐하면 _____

04. 나쁜 규칙은 (규칙을 어겨서라도, 규칙을 지키면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_____

질문지에 답을 한 다음, 학생들에게 발표하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발표하는 동안에 나머지 학생들은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악법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400자 내외로 논술하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답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편안하게 글을 썼다.

영상 세대라고 하는 요즘 학생들의 대답은 직선적이고 단순하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학생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고 그들끼리의 장난에서도 이유를 대기 시작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기 시작한 것이다.

사고력 확장을 위한 독서, 토론, 성찰, 그리고 창조적 글쓰기

말과 글을 '언어'라고 한다. 타인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구술'이고 글로 하는 것이 '논술'이라고 거칠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구술과 논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고 있다.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생각을 나눈다. 인간의 이런 생각하는 힘을 '사고력'이라고 한다. 사고력도 힘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연습하면, 보다 강력해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사고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폭넓은 독서와 열린 토론, 그리고 성찰이다. 폭넓은 독서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열린 토론은 언어의 훈련과 논리적 훈련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성찰은 생각하는 힘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해 왔고,

지금도 글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쓸 것이다. 그림일기, 편지글부터 인터넷에서 댓글 달기까지. 삶 그 자체가 글쓰기의 연속이다. 글을 통해 남을 설득하는 글쓰기가 논술이다. 남을 설득하려면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논술은 '논리적 글쓰기'인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은 논리적 글쓰기를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먼저 창조적 글 읽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자의 견해나 주장에 의문을 품고 자기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 보는 자세로 책을 읽어야 한다. 또한 독서는 저자의 견해를 따라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자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살아 숨쉬는 행위여야 한다.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어서 하고 다른 사람의 삶과 구별되는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독서는 '나'를 잊지 않는 것이다. '책을 읽는 나'와 '저자와 대화하는 나', 그리고 '그러한 나를 지켜보는 나'가 살아 있어야 창조적인 독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창조적인 독서를 통해서 논리적이고 창조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수 있다.

창조적인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적들

전술한 것처럼 책을 저자와 대화하듯이 읽으면서 궁금증과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며 읽어 나간다면 그는 논술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서울로 가는 위한 최단거리의 길을 택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지름길로 가는 안내 책으로는 《동양철학 에세이》를 권한다. 이 책은 묵가와 유가가 서로 비판하던 과정은 물론이고 공자와 맹자의 관계, 노자와 장자의 관계를 재밌게 유익하게 다루고 있다. 여기에 명가와 농가 등 생소하지만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비주류 사상들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은 창조적인 독서를 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이 책을 창의적으로 읽으면서 메모를 하는 습관을 익히기 바란다.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기 위한 좋은 책이기에 강력히 추천한다. **☞**